



경북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의체' 출범식 가져!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9개 기업 참여, 경북 수소산업 생태계 조기 활성화

경북도는 15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협의체 출범식을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참여 기업 30개 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등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국내 수소 기업 대표들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협의체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경북도는 수소 기업 30개사 유치를 목표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계획을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클러스터 입주기업 투자협약 체결과 기업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및 민관 소통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투자협약 기업으로는 연료전지 스택 및 파워팩 등 제조사인 햅스, 수소 생산 촉매 및 반응기 제조사인 에너지엔퓨얼 등 5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 총액은 1,200억원으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기업직접화 단지 내 총 40,111m² 면적에 기업 관련 시설을 갖추고 총 625명의 인원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연료전지와 수전해 부품 소재의 제조 분야에서 전국 최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수소 분야의 귀중한 첫 투자인 만큼 앞으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 지원사업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기업협의체 출범식이 경북의 수소 산업을 열어줄 마중물로서 기대가 크다."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벨트의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경북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지속가능 식품 '블루푸드' 가치 확산 나선다

전라남도도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김 산업연합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블루푸드를 전남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물 가치창출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블루푸드는 수산물을 의미하는 씨푸드(Sea Food)를 넘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건강에 좋은 영양 공급원으로 넓게 정의되고 있다.

포럼에선 '미래 블루푸드테크, 전남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주도형 블루푸드 기술개발 전략에 대해 오윤열 원장이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오철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국내 수산부산물 가치와 활용연구 사례', 이상민 (주)대상 목포센터장의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현황과 김 산업 미래', 하남출 서울대 교수의 '김 활성처리제 개발과 김 산업 발전 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하남출 교수의 주제발표는 김양식 어업인의 오랜 숙원인 김활성처리제 개발건으로 고수온기에 갯병 예방 효과가 있는 신제품 연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을 담고 있어 김양식 어업인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합토론에서는 오윤열 원장을 좌장으로,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업과장, 류지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



관, 최경삼 김 산업연합회 본부장, 오철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책임연구원, 이상민 센터장, 하남출 교수가 참석해 '식량에서부터 산업원료까지, 블루푸드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박영채 과장은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재조명 받고 있는 블루푸드를 전남의 새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관심있는 어업인과 관련 업계 전문가가 참석해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경기도미술관·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 특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공동 개최

4월 20일, 4월 21일 양일간 하루 4차례 상영, 감독과의 대화도 함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오는 4월 20일~21일 양일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공동 기획으로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 특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미술관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4월 5일 체결한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이틀간 마련되는 이번 특별 상영회에서는 총 4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미디어 공동체 '연봉홍치마'에서 '세월호 10주기 영화 프로젝트'로 기획, 제작한 세 편의 단편 '옴니버스 '세 가지 안부'(드라이브97, 흔적, 그레이존)와 4·16재단 지원으로 제작한 '기억해, 봄'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최효영 감독의 '기억

해, 봄'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명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여 작품의 의미를 더한다.

영화 상영은 오는 4월 20일~21일 양일간 하루에 4차례 상영이 이루어지며 회차별 부대행사로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상영회는 경기도미술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잔여석이 있을 때에는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미술관 누리집 행사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상영회 기간 중에는 경기도미술관이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준비한 추념전 '우리가, 바다'를 비롯한 미술관의 기획전시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상영회를 총괄 기획한 DMZ국

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강진석 프로그램머는 "지난 10년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으며, 그 모든 실천의 자리에는 다큐멘터리스트의 카메라가 함께해 왔다"며 "이번 상영회를 통해 치유와 연대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특별 상영회를 공동 추진한 경기도미술관 황록주 기획운영팀장은 "미술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장소이며,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 의미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라며, "이번 특별 상영회를 통해 경기도미술관이 더 넓은 품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충남도, 해변을 가족처럼... '반려해변' 정화 활동 함께 해요

충남도는 보령 원산도 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기업과 연관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와 보령시를 비롯해 원산도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한 예금보험공사, (주)SGC솔루션에서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구역을 나눠 해변을 걸으며 해양쓰레기를 줍고, 종류와 수량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최다 수거와 특이한 쓰레기를 수거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정화활동에 재미를 더했다.

해양쓰레기 종류와 수량을 기록한 자료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반려해변은 특정 해변을 기업, 단체 등이 입양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사업으로,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해양쓰레기 에 대한 장기 대응 수단으로 개발한 해변입양 프로그램

을 국내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해석해 시행 중이다.

(주)SGC솔루션은 2022년 8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4월 원산도해수욕장을 반려해변으로 입양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각각 2번, 4번의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원산도 해수욕장 외에도 도내 26개 해변을 32개 기관·단체가 입양해 관리 중이며, 반려해변을 입양한 기업·단체는 2년 동안 연간 3회의 정화활동을 펼치고 해양환경 인식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바다를 내 가족과 같이 돌보는 반려해변 제도를 도와 주도해 장려하고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속가능한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발전시켜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제27회 2024 광주왕일도자 컨퍼런스

2024. 5. 3. 금 — 5. 15. 수

곤지암도자공원 일원 13일간

개막식 5. 4.(토) 16:00



전라북도의회 운영속 도의원, 전남도 만원주택처럼 청년 유입을 위한 파격적 공공임대주택 제공 사업 추진 제안

도 청년정책, 일자리에만 매몰, 일자리와 함께 적극적인 주거 지원 정책 필수



일자리만 제공하면 청년들이 전북을 선택할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속 의원(익산3)은 15일 제40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인구증가의 핵심계측인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보다 적극적인 청년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작년 7월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 등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짚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전북자치도만의 인구감소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세가지로 꼽았다. 첫째, 현 시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가난했던 과거에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했기에 산업도시로 청년들이 몰렸지만 현재는 노동의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 일자리 하나만으로는 해당 지역을 선택하기 어렵다. 워라밸, 워케이션, 니트족 등이 요즘 청년세대의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는 현상들이다.

둘째, 지자체의 권한과 능력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정책보다 주거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민간기업의 지원과 참여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없지만 주거 지원은 정책적 결단만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북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의원은 전라남도의 만원주택, 충청남도의 충남형 행복주택에 비해 전북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청년의 독립과 다른 지역 청년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경제적 영역인 일자리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일 것이다. 여기에 교통과 문화, 교육,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때 진정한 인구감소대응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출/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강대길 의원, 울산광역시 유보통합 및 보육정책 간담회 개최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양기관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도록 정책마련 필요



15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강대길 의원(교육위원회)은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유보통합 및 보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유치원관련 단체 대표 7명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 대표 6명등 20명이 참석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유보통합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울산교육청은 2023년 9월 유보통합추진단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고, 2024년 1월부터는 유보통합 전담조직인 유보통합기획팀과 유보통합조정팀을 신설하여 유보통합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시청과 협력하여 울산형 유보통합인 "두빛나래"운영 방안을 마련했고, 유보통합추진단 실무협의체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환경 정비와 주변의 다양한 여가·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지방자치 종합정비계획

워크를 구축 하고 있으며,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치원관련 단체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로 나누어진 현 체계를 영유아 정교사로 통합되게 된다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며 "시설에 있어서도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집관련 단체에서는 "영아 보육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 교사대 아동비율은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무엇보다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부모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강대길 부의장은 "유보통합의 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양 기관에 소속된 원아, 교직원, 관련 환경 등의 복합적이고도 광범위한 격차 해소가 핵심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양 기관의 입장차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설득과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포용적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황규진/기자

충청남도의회 이완식 의원, 초대천 정비와 기지시박물관 환경 개선 촉구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과 상습결빙구간 개선 통한 도민 안전 당부

충청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시 초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 개선에 충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초대천은 호우 시 호안 유실 및 하천 범람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강우의 지속과 아산만 외조위 영향으로 배수압문의 홍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인근 유역에 침수 및 일부 제방의 포락 등 홍수 피해가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천수를 직접 서해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펌프장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초대천을 비롯한 인근 중흥천·마항천에도 제방 공사를 시행해

홍수 예방은 물론 수질·생태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수변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신설도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를 통해 충남 전 권역을 이용하는 등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변 환경이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배수로의 배수불량 및 악취 발생 등을 확인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도로·수로의 정비와 복개 공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박물관 진입 후 상습결빙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며 "오르막길 결빙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를 미연



에 방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초대천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돼 하천정비와 주변의 다양한 여가·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최정근/기자

동해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 방문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복삼 건강증진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창업보육센터 방문

동해시의회는 4월 15일,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복삼 건강증진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창업보육센터 3개소를 찾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관내 주요 시설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동호 의장은 "오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동해시의회가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

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4월 16일, 목호 건강증진센터, 동해지역자활센터 및 자활 사업장, 무릉별유천지를 대상으로 2일 차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의원의 송정동 해군작전헬기장 건설과 관련한 10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각종 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동원/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수원시의회, 향후 9개월간 연구활동 지원할 5개 의원연구단체 선정



수원시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했다.

이날 심의 전 올해 신규 위촉되는 김창범, 이영재, 임인수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실시했으며, 바로 이어진 심의에는 강영우 위원장을 비롯하여 신규 위원과 기존 위원인 권혁성, 김옥향 교수 등 외부 위촉위원 5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연구계획을 심사했다.

올해 수원시의원들이 제출한 7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심의하여 5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들 연구단체는 향후 9개월여 동안 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

강영우 위원장은 "각 연구단체의 활

발한 연구활동이 수원시의회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대표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조성하고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정된 의원연구단체는 ▲건강한 돌봄 노동을 위한 연구회(사정희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채명기 의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립미술관 활용방안 연구회(현경환 의원), ▲수원시 영유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연구회(배지환 의원), ▲수원시 청년 고용 확대 및 취업지원 연구회(홍종철 의원)다.

김범상/기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지구협의회 결성 35주년 기념식 참석..봉사와 나눔의 헌신에 감사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4월 15일, 화성시 자원봉사자센터(화성시 남양읍)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지구협의회 결성 3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화성지구협의회회장, 12개 단위 봉사회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역 사회의 어두운 곳을 헌신적으로 밝혀 온 화성지구협의회 35살을 축하하며 봉사와 나눔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자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디서든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활동이 간디의 정신이며 희망으

로 가득한 나눔의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 감사패 전달, 봉사원의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그일 행사를 주최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지구협의회는 25개 단위 봉사회로 구성되어 68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난구호, 긴급 지원, 헌혈 캠페인, 어른시 나들이 프로그램, 다

문화가족 문화 체험 등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시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키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우수 작은도서관 752개 선정. 운영비 36억 원 지원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 작은도서관을 차등 지원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 작은도서관 752개를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도민 누구나 책과 이웃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독서 및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현재 1,676개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작은도서관을 발굴하고 있는데 올해는 752개를 선정해 운영비 약 36억 원을 지원한다.

운영비는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 610만 원 ▲B등급 510만 원 ▲C등급 4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된 예산은 책이나

기자재, 소모품 구입, 자원활동자 실비 자금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재정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도움을 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방·난방비 지원, 협력지원 및 활동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울목중학교 민원 해결을 위한 2차 정담회 가져

4월 안으로 기간제 교사 채용, 5월 내에 학급증설 완료 예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2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울목중학교 학급 증설을 위해 과천 교육지원센터 담당자들과 2차 정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부서를 모두 소집한 긴급 정담회에 이은 후속 조치로, 4일 김현석 의원이 요청한 사안들에 대한 진척상황 및 리퍼밀리에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과천 울목중학교는 4월 11일 기준 1학년 144명 5학급, 2학년 30명 1학급, 3학년 20명 1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과천시 중학교 배치기준 31명에 근접한 1,2학년의 경우 학급증설이 필수적인 상황인 것으로 김현석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차 정담회에 참석한 조정미 과천교육지원센터장은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4월 안에 학급증설에 필요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5월 안에 학급증설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순회교사 확보 부분에서 미리 지원청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당부하여 현재 순회교사 확보문제도 차질 없이 진행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현석 도의원은 “과천교육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예상보다 빠른 업무진척을 보이고 있어 안심이다”며 9일 완료한 교육지원센터의 중학교 전입생 수 파악 결과 1학년 14명, 2학년 14명, 3학년 3명의 전학수요가 확인된 만큼 5월 중으로 차질없는 학급증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 건설본부 정담회 통해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건설본부와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15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 건설본부와 정담회를 갖고 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 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를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도 건설본부 소관의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 방성환 의원(국힘·성남5)은 “지나친 외래어와 어려운 정책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의 이해성이 떨어져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국힘·수원6)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석규 의원(민, 의정부4)은 “경기 북부지역에 도로와 교통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 지속



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민·비례)은 “도민들이 사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도로를 위해 유지·보수에 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관리·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은 “경기 도민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현안들

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서관이 포함된 경기융합타운 조성에 있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의원님들께서 정책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중점 정책

681건의 지역현안들이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해왔고 정책적 협의를 이뤄내기 위한 마무리 점검 및 내실있는 백서 집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필요성 제기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를 만나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는 버스별 배차간격 편차가 크고 차고지 역시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버스 노선이 길어지는 등 버스 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며 “광주시 내 버스 뿐만 아니라 택시, 철도 등 교통수단간 연계성을 통해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한 도심 내 거점형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의원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경기광주역은 향후 GTX-D노선, 위례-삼동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기능이 기대되는 만큼 복합환승센터 건립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앞으로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미래 교통수단의 다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 꾸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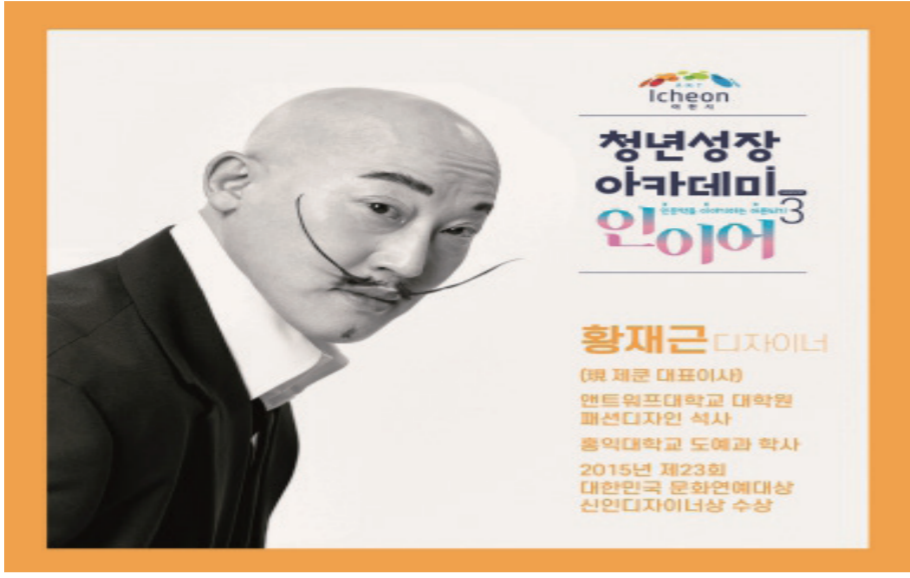
호미

이천시, OOTD(오늘의 패션)도 이룸에서 완성! 청년이룸, 복면가왕 가면 디자이너 황재근 특강 진행

이천시는 MBC 복면가왕의 가면을 제작하는 황재근 디자이너를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에 초청하여 '패션 고전 미학 발자취부터 OOTD(오늘의 패션)스타일까지'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황재근은 한국인 최초로 벨기에 엔트워프 왕립 예술학교를 졸업한 디자이너로 차세대 탑 디자이너 선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올스타전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바 있다. 또한, 여성복 라인 제권(ZEQUUN)을 론칭해 독특하고 강렬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기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 특강에서 황재근 디자이너는 이천시 청년들에게 창조적인 사고로 패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



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패션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정이다.

본 강연은 4월 19일 늦은 7시, 청년이룸(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01-32)에서 진행하며, 관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패션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강의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청년일자리카페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명사 특강인 만큼 청년들이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카페를 주축으로 다양한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민원서비스 대통령 표창' 격려...김성제 의왕시장, 도시개발 특강도 화제

북부녹색어머니회 청소년 자녀 14명 대상

이현재 하남시장이 15일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받은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을 헌신적인 노력을 펼친 직원들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는 물론, 각 사업부서 등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노력해 더해서 작년 국무총리상에 이어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를 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시장은 체계적인 생활민원 접수·관리를 위한 '원-스톱(ONE-STOP) 하남민원 시스템' 운영 등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 중심, 소통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상금의 일부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상생으로 나아가는 규제개혁-의왕시 도시개발 사례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날 의왕시와 하남시의 관계성과 의왕시 도시개발 사례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개했다.

이날 김 시장은 의왕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성공사례인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을 예로 들며, 성공적인 도시개발 노하우를 공유했다.

백운밸리는 재원조달 지연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였으나 민·관합동개발방식(PFV)을 통해 재원 조달 및 사업성을 확보하고, 수차례 전문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GB) 해제 및 개발계약(안) 변경을 이뤄냈다.

의왕시는 이를 바탕으로 9,626억원의 공익환수를 이뤄내며 도로·공원·녹지 등의 기반시설과 중학교 설립·종합병원 설립 지원·백운호수 산책로 조성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의왕시민 100%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이날 의왕시와 하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심 철도망 구축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확대 ▲일자리 확충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재 시장은 "오늘 하남시를 방문해주신 김성제 의왕시장의 강연을 통해 GB를 해제해 도시개발을 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하남시와 의왕시는 공통점이 많은 도시인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는 ▲표창수여(선행시민·선행도민·각 분야 유공 및 공무원) ▲시장님 역점시책 및 당부 말씀 전달 등으로 진행했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66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정비사업 추진 첫 발

고양특례시는 4월 15일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지난해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고 난 후, 올해 2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3월 고양특례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

는 행신1-1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22번지 일원으로 창릉, 능곡, 행신 택지개발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저층 주거 지역이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용적을 250%이하, 최고 층수 29층, 2개 단지 10개 동 66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행신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활기를 띠 것으

로 기대된다. 이후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의 중요한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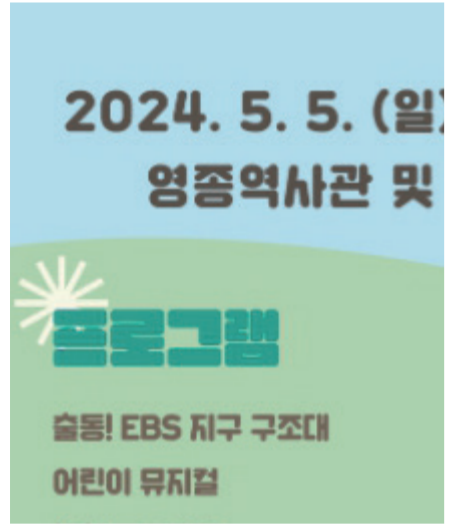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동의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인천중구문화재단, EBS와 함께하는 '2024 가족의 달 어린이 축제' 개최

어린이날인 5월 5일 영종진 공원에서 개최. 어린이를 위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풍성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은 어린이날인 오는 5월 5일 영종진공원에서 EBS와 공동으로 '2024 가족의 달 어린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족의 달을 맞이 마련된 이번 '어린이 축제'에서는 '출동! EBS 지구 구조대', '어린이 뮤지컬'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재단과 EBS가 공동 기획한 '출동! EBS 지구 구조대'는 야외 체험공간에서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 학습하고 상상의 생명체를 만들어 보는 등의 복합 교육 활동이다. 재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다면 공간 체험(메타버스) 및 증강현실(AR) 콘텐츠 등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보유한 이동형 체험 공간인 '이(E)-스쿨버스(School-Verse)'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부모의 소통 스킬'을 주제로 한 '교양강의', 부모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어린이 뮤지컬', 아이들의 경제 관념 확립을 위한 '어린이 물물교환'도 함께 열린다.

이 외에도 '인천 어린이 공연예술축제(아시테지 in 인천)'와 협업한 서커스 및 목각인형 콘서트는 물론, 영종역사관 주관의 '제2회 역사 그림 그리기 대회'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번 어린이날 축제에 참여해 많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구문화재단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생활축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남/기자



피어나다 남원

춘향, COLOR 愛 반하다!

제94회 춘향제 남원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

전북도 국제협력진흥원, 외국인 기술·한국어 교육 운영

이달부터 지게차운전기능사, 한국어 학과교육 실시

“외국인 기술 교육 및 한국어 교육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도내 외국인 주민의 산업역량 강화 및 장기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한국어 교육 및 교육 비용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게차운전기능사 및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현재 대다수의 체류 비자인 비전문취업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비자(E-7-4)으로 변경하기 위한 점수를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도내 기업은 전문산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는 점에서 전북의 산업경쟁력과 인력확보에 도움이 된다.

추구하여 전북의 외국인 주민의 장기거주를 위한 숙련기능인력비자(E-7-4)는 물론, 지역특화형비자(F-2-R) 지원사업이 더욱 발전해나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진안군, 막걸리 페스티벌 준비 열기로 후끈, 지역 막걸리 무한 무료 제공!

초여름 저녁! 진안에서 놀자!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관광도시 진안군이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동안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일원에서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 낭만포차’행사를 개최한다.

이 버스는 15시와 16시 전주에서 출발하고 20시 30분 행사종료 후 진안에서 전주로 되돌아가는 교통편으로 왕복 1만원의 교통비를 부담하면 1만원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아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진안군은 막걸리 페스티벌 먹거리 준비를 위해 16일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내 산약초타운에서 먹거리 매대(푸드카드) 운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마이산 북부 상인회, 청년회, 귀농귀촌인 등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소개 및 전반적 추진 방향과 먹거리 매대(푸드카드)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기간 내 숙박을 인증한 관광객에게는 추첨에 따라 ‘홍삼스파 티켓’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도전! 막걸리 빨리 마시기’, ‘내가 바로 막걸리 소믈리에’, ‘깜찍! 북면가왕’, ‘별별 라디오 소원을 말해봐’ 등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와 축제에 활기와 즐거움을 더해 줄 초청공연 등을 마련해 축제를 찾는 이들에게 진안고원의 초여름 저녁,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막걸리 페스티벌은 지역 특산 전통주인 딸기막걸리, 홍삼막걸리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으며, 안주를 구매할 경우 증정만 제시하면 막걸리를 무료로 무한 제공한다.

지역의 골목상권 및 협력 업체들이 직접 개발하고 조리한 1만원 상당의 다양한 막걸리 안주들을 메뉴로 먹거리 매대(푸드카드) 거리도 운영할 예정으로 인근 도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행사 당일 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과 진안 마이산 북부관광단지를 오가는 진안고원 힐링투어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 및 푸드카드 운영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공문을 참조하거나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수/기자

신안군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 추진

섬·섬 팔금도 책마을 조성으로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한다

신안군은 도서출판 한길사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이 함께 ‘섬·섬 팔금도 책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 및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작가의 집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신안의 섬 생태·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책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안좌중학교 팔금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세대어울림센터’로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책마을 방문객에게 숙박시설과 편의 공간 등을 제공하고, 책마을 축제 등 야외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연호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정명중 원장이 참여해, 신안군 팔금 책마을 거점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 개발, 거점 공간의 운영 및 홍보·마케팅, 인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리고 한길·신안 출판 레이블 사업 추진 등에 협약하고 상호 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섬·섬 팔금도 책마을은 여행자센터, 테마길, 갤러리, 아카이브, 책박물관, 작가의 집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신안의 섬 생태·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책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김정은 명사 초청 ‘2024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첫 강연 개최

봄꽃이 만연한 4월!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에 군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년 진도군민행복 아카데미 김정은 소장 "행복이란 무엇인가"
4.23.(화) 14:30
진도군청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한다.

진도군이 ‘2024년 진도 군민 행복 아카데미’를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진도군청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한다.

반으로 휴테크, 대인관계 등 현대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군민들과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를 초청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총무과 인재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진/기자

완도군, KB국민은행과 함께 작은 도서관 조성한다!

KB국민은행,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업무 협약 체결

완도군은 9일 KB국민은행,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KB 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추진되며, 올해는 완도읍의 도담도담 작은도서관이 선정됐다.
지난 2018년 약산면의 진달래 작은도서관 조성 이후 두 번째 선정이다.

서관 조성 후원금 지원,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는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완도군에서는 운영 인력 및 예산 확보, 정기 도서 구입 등을 추진한다.



양영을/기자

목포시, 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 참가...여행업계 호응도 높아

낭만과 특색 가득한 관광상품 발표

목포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련 관광상품 홍보에 나서며 목포관광 훈풍에 파격 도전했다.

광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시는 이날 근대역사1관, 해상케이블카, 스카이워크 등 목포시 우수관광자원을 ▲근대역사관광 ▲해상관광 ▲야경관광 ▲미식관광 중심 주제별로 정리하고 시가 추천하는 관광코스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행, 해외미스 단체를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목포 내 음식점, 숙박시설, 유료관광지 등 지원조건을 만족하면 인원과 숙박일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의 우수한 테마·특화 지역관광 상품을 적극 기획하고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구례군청소년수련원과 업무협약 체결

보성군은 지난 5일 구례군 청소년수련원에서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과 구

례군청소년수련원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관련 상호지원 협력 강화, ▲지역 청소년을 위한 상호 간 지속적인 협력 문화 조성, ▲청소년 특성화 자문 컨설팅 지원 등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활발한 교류와 지원을 약속했다.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전태진 관장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과 지원 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원영/기자



경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4~5월 입산객 급증,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 채취 집중단속

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고 불법 입산물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입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입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캐벌 행위 등이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며, 산행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입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

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불법 특별단속(2023. 4. 1. ~ 5. 31.)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166건이 적발됐고, 그중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현태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새로운 콘텐츠로 재개관

16년 만의 새 단장, 체험 및 실감형 콘텐츠 '완비'

박남서 영주시장,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해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풍기인견 이미지 제고와 인견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경북 영주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이 새look 단장해 지난 16일, 문을 열었다.

시에 따르면 2008년 개관한 홍보전시관은 그동안 지역의 대표 특산명품인 풍기인견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시는 홍보전시관이 개관 후 16년이 지나 일부 전시시설이 노후화되고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람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체험 및 실감형 전시를 통해 풍기인견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이번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새 단장을 마친 홍보전시관은 우측 동선을 따라 풍기인견 관련 각종 정보와 체험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구성된 전시 공간으로 연출됐다.

도입에는 150인치 스크린과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풍기인견을 소개하고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며 인견 제작 과정을 안내하고 과거와 현대 직기를 풍기인견 원단과 함께 실물 전시했다.

특히, 전시관 중간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풍기인견 패션디자이너가 돼보는 체험형 콘텐츠 '라이브 스케치존'을 배치했다.

홍보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풍기인견으로 만든 간단한 소품(양말, 토시, 손수건 등)을 현장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해 풍기인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풍기인견 이미지 제고와 인견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풍기인견은 나무에서 추출한 실로 만든 순수 식물성 자연섬유로 영주지역 대표 특산품이다. 가볍고 시원하며 착용 시 몸에 붙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상쾌한 촉감으로 피부에도 좋아 '냉장고 섬유'라고 불리며 무더운 여름 최고의 소재로 손꼽힌다.

정금자/기자



영천 청제, 올해 첫 통수 고유제 거행

영천 청제, 올해 풍년을 기원하며 첫 통수 고유제 거행

최기문 시장, "올 해 농사가 풍년으로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주민들의 농업경쟁에 해되지 않게 청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영천시는 지난 15일, 금호읍 구암리 소재 경상북도 기념물 영천 청제 못둑 위에서 올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첫 통수에 대한 고유제를 엄숙하게 거행했다고 밝혔다.

고유제란 국가와 사회, 왕실 및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 집안의 어른, 문중의 시조, 관련 신령에게 그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뜻하며, 청제에서 거행된 고유제는 통수라는 사회상 농사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인식됨으로써 행해졌다.

통수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풍년의 기원을 담아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처음 개방해 전답에 흘려보내는, 한 해 농사의 시작점이자 예로부터 마을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였다.

제례는 초헌례로 시작해 아헌례, 중헌례 순으로 진행했으며, 초헌관으로 서명한 영천농업기술센터소장, 아헌관과 중헌관은 마을의 주민들이 맡아 행함으로써 관민이 합심해 올해 구암리 일대의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통수 고유제는 우애자 영천시의회 부의장, 이영우 의원을 비롯해 관련 마을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힘차게 흘러내려갈 청제의 용수처럼 올 한 해 농사도 힘차게 시작해 풍년으로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마을 주민들의 농업경쟁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청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릉군, 2024년 독도박물관-해녀박물관 공동기획전 "독도 그리고 해녀" 전시 개최

남한권 군수, "이는 울릉도/독도 출어 문화사를 재조명하는 것, 나아가 해녀들의 활동이 독도의 실효적지배 강화에 기여했음을 인식하는 공동기획전이 되길 희망해"



독도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독도박물관 별관 특별전시실에서 "독도 그리고 해녀"라는 제목의 공동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독도박물관과 해녀박물관의 문화교류 및 공동학술연구 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시로 2023년 해녀박물관에서 1차 공동기획전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독도 그리고 해녀"전시는 울릉도 및 독도로 출어한 해녀들의 역사와 활동내역, 조업방식 변화, 어구의 변화, 울릉도에 정착한 제주해녀, 최종덕의 해녀고용 등 울릉도에 적응해가는 제주해녀의 문화사를 다각도로 보여주는 제주해녀의 문화사를 다각도로 보여주는 제주해녀에서 박을 이용해 제작됐던 테왁이 울릉도의 거친 파도와 물살에 견디기 위해 양철통, 말통, 부표 등으로 소재가 변용된 사례의 실물 모형과 과거 이를 이용한 해녀들 조업 영상이 전시된다.

그리고 최희종덕이 자신이 고용한 제주해녀에게 나잠어업과 잠수기어업의 중간 형태인 '하다가 조업'을 교육해 독도에서 보다 깊은 수심에서 장시간 조업이 가능토록 변용한 조업기술의 사례도 소개된다. 또 과거 최희종덕이 독도에서 해녀들과 생활하기 위해

양철 슬레이트로 지은 어민보호소 건물의 실물모형과 당시 사진이 함께 전시되어 당시 독도에서의 열악했던 생활환경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전시는 현재 울릉도에 정착한 제주해녀 8명의 구술생애사 영상을 키오스크를 통해 선택 관람 할 수 있다. 제주 울릉도-독도로 출어해 결국 울릉도에 정착, 해녀로 서명맥을 이어온 그녀들의 삶의 여정이 이번 전시의 이야기를 풍성케 만들 예정이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전시는 제주해녀들의 울릉도/독도 출어 문화사를 재조명하는 전시로, 많은 관람객들이 제주도와 울릉도의 연결하는 문화적 키워드인 해녀의 역사와 문화를 명확히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나아가 해녀들의 활동이 독도의 실효적지배 강화에 기여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공동기획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강제/기자

봉화군,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추진

냉장유통차량 2대, 육절기 4대, 골절기 2대 지원

봉화군은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과 냉장유통 체계 정착을 위해 9,2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축산물판매업소 및 축산물 취급 영농법인 8곳이며, 지원품목은 1톤 냉장차량 2대, 육절기 4대, 골절기 2대다.

이번 사업의 선정기준은 냉장차량은 축산물 관련 법인의 총운영설치 1

년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고, 육절기와 골절기는 축산물 브랜드 취급 영업장 및 기기 노후화로 장비교체가 시급한 영업장으로 HACCP 인증업체는 우선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거래 활성화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안동시, 「2024 낙동강 클린안동 가꾸기」 활동 개시

권기창 안동시장, "이른 새벽부터 참여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깨끗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 안동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



안동시는 지난 15일(월), 낙동강변 둔지에서 3개 단체(안동시자연보호협의회, 안동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한국자유총연맹 안동시지회)의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2024년 '낙동강 클린안동 가꾸기' 활동을 본격 개시했다.

'낙동강 클린안동 가꾸기'는 4월 15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매주 월요일이나 금요일 아침 6시부터 진행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으로,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에 지정된 구역별로 정화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자연보호중앙연맹안동시협의회(회장 김명환), 바르게살기운동안동

시협의회(회장 이석원), 안동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남성대장 김은현), 한국자유총연맹 안동시지회(회장 김옥희), 안동시자연봉사센터(센터장 고은자), 대한적십자봉사회안동시지구협의회(회장 전중우), 예비군안동지역대(대장 김웅현) 총 7개 단체가 참여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이른 새벽부터 참여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깨끗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 안동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국 최초!'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 견인



강원특별자치도는 혁신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대 5천만 원의 대출과 5년 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100억 규모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

도내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예비 및 업력 7년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이 당초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만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더 많은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지원업종을 기존 업종에 더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소매업 제외), 비알코올음료점업(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제외)을 추가했으며, 강원 신용보증재단의 교육 수료 의무도 폐지 했다.

예비 창업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고일 기준 2주 후인 4월 29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강원 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1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도내 청년 창업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출연금 지원(각 2억 원)과 대출업무를 진행하며 강원 신용보증재단은 창업자의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이자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들의 역의 유출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이 강원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아산시 박경귀 아산시장 "이순신 장군을 도박게임에 도용?" 대노

5일 주간간부회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정식 항의" 지시

총무공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도박 게임이 세계적으로 유통되면서, '이순신의 도시'를 자처하는 아산시가 게임사를 상대로 정식 항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5일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아산시는 이순신축제를 준비하고 웹툰 제작 등 선양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도시"라며 "이렇게 장군을 폄훼하고 불명예를 안기는 도박 게임이 만들어진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한 게임사는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YI SUN SHIN'이라는 이름의 슬롯게임을 출시,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있다.

해당 게임에서 이순신 장군은 중국풍 갑옷을 착용한 채 게임머니를 따면 "승리는 나의 것이다."

준비 발사", "조국을 위하여 이순신이 돌아왔다" 등의 한국어로 도박을 지휘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를 소개하며 이순신 장군과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경귀 시장은 "온라인 도박은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중국풍 갑옷을 입고 도박을 지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장군의 명성을 이용해 자극적으로 도박 게임을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을 선양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폄훼를 막

는 수호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게임 회사에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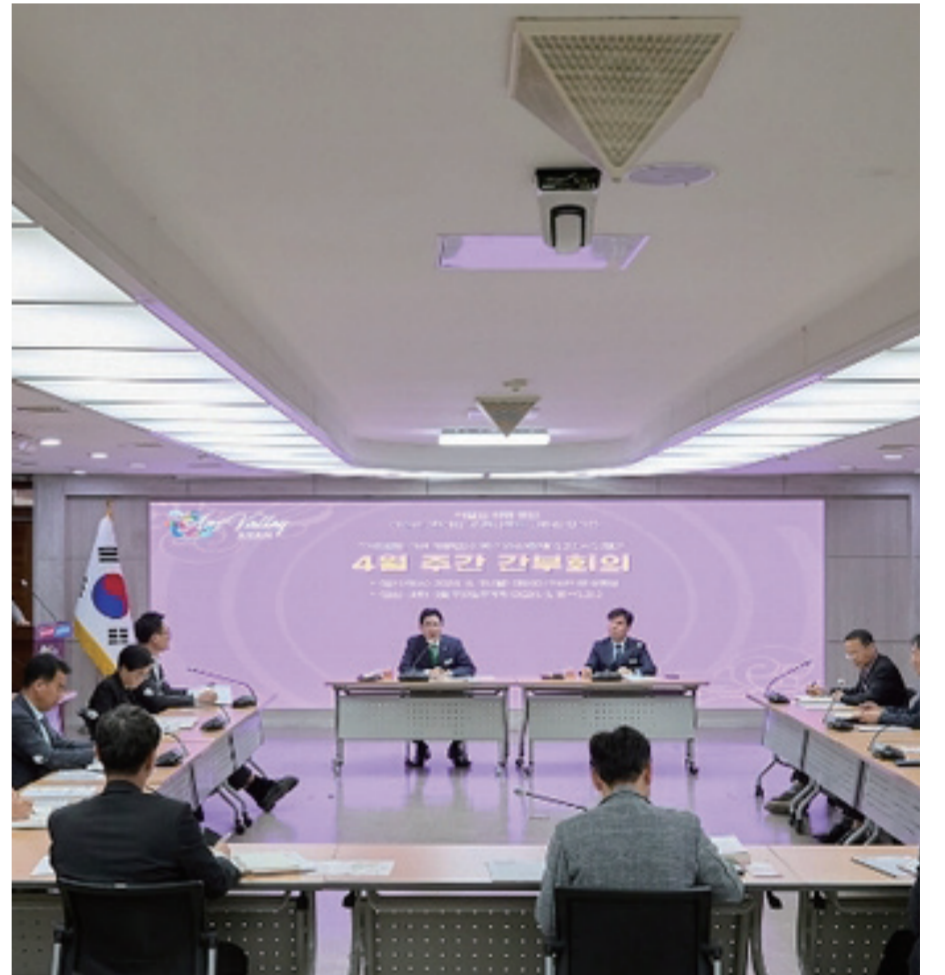
이날 또 박 시장은 "민선8기에 들어 '농정분야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농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농민교육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옛 선장역~학생역 장항선 폐철도 2.5km 구간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차길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색있는 힐링코스를 만들어서 도고온천 활성화를 이끌 명소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투자유치 기업 대상 지속적인 지원 관리 ▲이순신축제 청사초롱 같은 축제별 상징 설치물 고안 ▲아트밸리 아산 유스밴드 군악의장대 페스티벌 참가 관련 영상 제작 ▲이순신축제 정부세종청사 게릴라 홍보 만전 등을 당부했다.

또 ▲시그니처한복 대여사업 팸투어 추진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대상지 조사 ▲인사 공정성 체감도 향상 ▲영인산 철쭉제 홍보 집중 ▲배방 북수지구 도시개발 주민설명회 적극 관여 ▲아산맑은쌀 밥집 육성 내실화 ▲시립합창단 외 전문 뮤지컬단 구성 등도 지시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건양대·순천향대 글로벌대 '1차 관문' 통과

도내 예비지정 대학 2곳으로 늘어...최종 지정 위해 총력 대응

충남도는 교육부 주관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건양대·순천향대가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예비지정에는 도내 16개 대학(12건)을 비롯, 전국 109개 대학(65건)에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20곳이 예비지정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같이 한국연구재단에 맡겨 혁신성,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 등 3개 영역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건양대는 지역 특성에 맞춘 국방산업을 특화하여 K-국방 전력지원 산업 인력양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순천향대는 작

년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받았다.

도는 글로벌대학 사업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예비지정 신청 전부터 도내 대학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해왔다.

지난해 도내 대학의 혁신기획이 충남의 산업 방향과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내부 컨설팅위원회를 구성, 자체 컨설팅을 통해 도정 연계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또 예비지정 평가 대면 심사에서는 도의 관련 실장들이 참석토록 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김태홍 지사는 지난 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도청에서 만나 글로벌대

학 사업 대상에 도내 3건 이상 선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할 바 있다.

예비지정 대학은 오는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혁신기획서에 담은 과제를 구체화 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7월 중 글로벌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홍 지사는 "지휘부와 실국장 등도의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예비지정 결실을 맺었다"라며 "최종 지정까지 예비지정 대학과 함께 본지정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대학은 지역 및 지역대의 위기

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대학을 집중 지원·육성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추진되는 사업이다.

본지정 대상은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에 이어 올해 10개 대학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벌대학에 지정되면 1곳 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체감형 도정위해, 자세 낮추고 민생에 귀 기울여야"

김영환 도지사, 확대간부회의서 체감형 도정으로 방향 전환 강조



김영환 지사는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은 도민들의 삶과 관련된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변화와 개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도정을 체감형 도정으로의 방향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생이 어려운 도민들은 도정의 떠다니는 말에 감동이 없고 체감하

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중부내륙특별법을 만들었어도 도민 체감에는 아직 부족한 만큼 빠른 시행령 제정과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삶과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감형 도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세를 더욱 낮추고 민생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추진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 우선 한 가지를 실행하며 현



장으로 들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체감형 도정으로의 전환 강조와 함께 실국별로 체감형 정책을 하나씩 뽑아서 바로 실천해 볼 것도 주문했다.

고정화/기자

자연에서 도자기가 피어나다 이천에코세라믹스

2024.04.25 Thu - 05.06 Mon
이천도자예술큐(에스파크), 사기막골도예촌

무료 입장 · 무료 주차
주최 이천시-이천문화재단, 주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경북교육청, 2024년 지역자원 연계 세계이해교육 운영

지역 대학 해외 유학생 활용한 생생한 세계이해교육으로 세계시민 육성
임종식 교육감,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세계이해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 '2024년 지역자원 연계 세계이해교육 사업'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역자원 연계 세계이해교육 사업은 경북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들을 강사로 활용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이해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는 국립안동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천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총 4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 145교에서 총 488차시의 세계이해교육 관련 수업을 했다. 수업은 세계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차이 존중을 주요 내용으로, 신청 학교와 협력 대학이 서로 협의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진행했다. 모든 수업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학교는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수업 재료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98%에 달할 만큼 현장에서 큰 호평을 얻고 있다. 특히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 활동 중심의 체험형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외국인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

교와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월등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국립안동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총 3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 156교에서 수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는 최대 연 2회까지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2차시로 학생 활동 중심의 체험형 수업으로 진행된다. 총 수업 시수는 신청 학교와 협력 대학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신청은 오는 19일까지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세계 시민의식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세계이해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교육지원청, 호국보훈 교육 확대를 위한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영덕교육지원청은 4월 15일 영덕문화관광재단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와 호국보훈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훈의 고장 영덕은 영해3.18호국 문화제를 비롯하여 신돌석 장군 순국 추모행사, 벽산 김도현 선생 도해순국 추모행사, 장사상륙작전 전몰용사 추모 위령제 등으로 호국행사가 많은 지역이다. 유인한 교육장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호국문화복지사업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호국보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나라 사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고양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현장점검 실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현미경 점검



고양교육지원청은 16일 일산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24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전자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행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마다 시행하는 차량 안전 점검이다. 현장점검은 고양교육지원청이 총괄하여 고양시 및 구청, 고양경찰서, 일

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점검 대상 기관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점검은 고양시 관내 통학버스 운영 기관 84개교 194대를 대상으로 1차 자체 점검을 한 자료 중 현장점검이 필요한 15개교 18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통학버스 신고 여부

를 확인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요건을 구비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장치 및 운행 기록장치 설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유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청 및 정기 점검 시 재점검할 방침이다. 고효순 교육장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동승보호자는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등 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란다" 밝혔다. 한영기/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 위한 현장 지원 강화

교사 800명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 카드뉴스 제작 등 적극 홍보 보여
임종식 교육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으로 학생들의 미래 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교육적 성장,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함양,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 교실 수업과 평가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현장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먼저 새 학년 시작 전인 지난 2월 일반계 고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새 학년도 맞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열고, 교육과정·수업·평가·진학의 각 영역에서 변화되는 점을 업무 담당 장학사가 직접 안내했다. 또 3월 초에 단위 학교별로 설명회

내용을 학교 내 자체 전달 연수를 통해 전 교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지원단' 53명을 구성하여 학교별 컨설턴트를 배치하고,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직접 지원한다. 지원단은 도 교육청 주관 연수를 거쳐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앞으로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카드뉴스는 개정의 핵심 내용이 요약·정리되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5월, 지원단 연수와 관리자·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6월, 지원단을 대상으로 컨설팅 방법 안내 연수, 9월에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교원 연수를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으로 학생들의 미래 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늘봄학교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체 초등학교 학부모 중 10,191명 참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늘봄학교 관련 설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10,191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만족 26.67%, 만족 36.23%, 보통 28.15%, 불만족 5.67%, 매우 불만족 3.28%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의 범위를 '보통' 응답까지 확대하면 그 비율은 91.0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천 1백여 명의 학부모가 '정책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아이가 만족하는 말길 곳이 있다', '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리', '큰 이동 없이 학교 안에서 해결 가능', '다양한 교육 경험' 등 긍정 평가를 자유 의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수는 1학년 3,908명(38.35%), 2학년 2,012명(19.74%), 3학년 1,407명(13.81%), 4학년 1,116명(10.95%), 5학년 901명(8.84%), 6학년 847명(8.31%) 순으로 나타나 저학년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교육청은 '복수 응답'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늘봄학교에 만족하는 이유는 다양한 학습형 늘봄 46.62%, 희망 학생 전원 수용 37.01%, 1학년 2시간 무상 운영 36.25%, 학생 안전 확보 33.43% 등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의 학습형 늘봄에 대한 기대

와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인 학습형 늘봄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법 다양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 점진적으로 상급 학년 희망 학생을 수용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늘봄학교가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점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64.63%, 보살핌 공백 해소 56.34%, 사교육비 경감 42.47%, 학력 향상 25.37% 등으로 조사됐다. 늘봄학교가 자녀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와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등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참여하는 늘봄학교 종류' 항목은 학습형 늘봄 48.48%, 보살핌 늘봄 21.91%, 1학년 무상 학습형 늘봄 14.39%로 지역 늘봄 3.01%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96%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원 등 개별프로그램 참여', '가족 내 자녀 돌봄 가능', '늘봄학교 정보 부족' 등이다.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학습형 늘봄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가 참여하는 늘봄학교 영역'은 예술·체육 교육 41.58%, 국·영·수 등 교과교육 28.69%, 보살핌 늘봄 22.3%, SW·AI 등 지능정보교육 19.68%, 바둑·요리 등 기타 14.1%로 나타났다. 특히, 저학년(1~3학년)의 경우 예

술·체육 교육에, 고학년(4~6학년)의 경우 교과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늘봄학교를 발전·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더욱 내실 있는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늘봄학교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후보자 16명이 관련 공약을 마련할 정도로 지역사회와 밀착된 우리 교육청 중요 과제"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부산형 늘봄학교가 제2의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거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기술보증기금,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기반 구축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기술보증기금, 지역 우수 콘텐츠기업에 금융 지원 나선다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충청지역본부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오전 기보 충청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진흥원 김성규 원장, 최훈 ICT융합본부장과 기보 송재연 충청지역본부장, 양정호 대전콘텐츠벤처투자금융센터장이 참석해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우수 콘텐츠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게임, 웹툰, 영상, 디지털콘텐츠 등 도내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도내 콘텐츠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콘텐츠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 기업에 대하여 △문화산업융합보증 지원을 통한 보증료 감면, 우대지원 △벤처·이노비즈 기업 선정 △기술이전



전북에 소재한 우수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과 투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성규 진흥원장은 "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협력을 통해 콘텐츠 제작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콘텐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내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재연 기보 충청지역본부장은 "기보는 이번 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광역시, 지역 중견기업과의 협업, 창업기업 성장 지원

지역 중견기업 3개사 등과 협업 실증(PoC) 8개 과제 지원

대구광역시는 지역 중견기업 및 선도기업(대·중견·공기업 등)과 함께 '2024년 대구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5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 간의 경계를 허물어 상호 기술과 아이디어의 공유로 혁신을 이끌어 내는 기업활동으로, 대·중견기업은 신시장·신사업 창출의 기회를 얻고 창업기업은 대·중견기업의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상호호혜적 관계의 개방형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지역의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견인하고자 작년부터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주)대동, 삼익THK(주) 등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대동의 경우 지난해 발굴한 창업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양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삼익THK(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발 기술을 갖춘 창업기업과 현재 재사용 배터리팩 공동개발을 추진 중이며 직접 투자까지 진행하는 등 협업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역 중견기업 3개사와 함께 진행하는 문제해결형과 중견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자율 제안형으로 구분해 추진하게 된다.

문제해결형은 지역 중견기업이 협업 과제 또는 분야를 제안하고 창업기업이 해결책을 제시해 협업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증(PoC) 지원 사업비를 함께 조성하기로 한 중견기업 3개사(주)대동, 삼익THK(주), (주)삼보모터스)의 과제를 공모한다.

자율 제안형은 창업기업과 선도기업(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등 18개사)이 분야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협업과

제2회 대구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및업 & 네트워킹

Where corporates meet innovation

2024.05.09(목) 13:00 ~ 18:00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참가기업 / C-Lab Outside, TCC, KOBEL, Hyundai outlets, EcoPro, ISU, 화성, 두아니온, SAMKWANG, HOBAN, ecoplant, 삼성생명

모집기간 / 4/19(금) 18:00까지

모집 대상 / 참여 대/중견/공기업과 협력을 원하는 스타트업

지원내용 / 1:1 비즈니스 미팅 & 세미나, 주요 협업과제의 실증(PoC) 연계 지원

문의처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이팀 (053-359-3670 / oi@ccei.kr)

신청 바로가기

제를 구성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도기업과 협업 기회가 부족한 창업기업은 '대구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및업데이'를 통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문제해결형 과제 6개사, 자율 제안형 과제 2개사, 총 8개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으로 총 3억원(문제해결형 각 4천만 원, 자율 제안형 각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024년 대구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

이션 지원사업 및 및업데이의 자세한 일정과 공모문은 대구창업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중견기업의 신사업 발굴과 성장에 오픈 이노베이션은 필수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선도기업과 협력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새롭게 재단장... 개소식 및 통합설명회 개최

4.15. 15:00 개소식에 이어 비(B)스타트업그라운드에서 '2024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도 열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재단장해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부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4월 설립돼, 부산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개소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모라센터와 동래센터 2곳으로 나눠 운영되던 센터를 동래센터로 통합해 새롭게 재단장한 것이다.

또한, 센터는 재단장과 함께 올해부터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위탁 운영한다. 공공기관의 비법(노하우)과 현장경험, 전문지식, 기반시설(인프라),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센터 운영의 효율과 능력을 올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기반시설(인프라)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장한 센터 내에는 오프라인 제품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도 신규 구축돼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사의 신기술과 시제품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별도 비용 투입없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센터는 ▲사회적경제 사업화 및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사회적경

제기업 마중물 지원 ▲부산형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및 집중 육성 ▲유통 플랫폼 및 공공부문 판로진출 ▲지산학 연계 사업혁신 프로젝트 ▲임팩트투자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가치동행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소식은 어제(15일) 오전 11시 센터 내에서 개최됐으며,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과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장, 유관기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 이어 어제(15일) 오후 3시 비(B)스타트업그라운드에서는 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자와 유관기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이하 통합설명회)'도 열렸다.

통합설명회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와 직원, 이해관계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설명회에는 센터의 사업과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및 안내 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가치경영(ESG)

도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통합설명회는 '유튜브'와 '바다TV'로 동시 송출돼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관련 사업을 문의할 수 있도록 구글 등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질의사항을 취합 후 개별 이메일로 회신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지원, 판로확대, 역량교육 등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스스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잘 만들어 부산에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게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제47회 보성다향 대추제

2024. 5. 3. (금) ~ 5. 7.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체험, 전시 / 경연, 공연 등

-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지 조합 | 보성다향대추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5. 3. (금) 보성군청운동장 군민 회합회포럼, 축사공연 등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 (토) 8:00 ~ 16:00 보성군청운동장 풀, 마루 10km, 5km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5. 5. (일) 보성군 일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20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 4. (토) ~ 5. 6. (일) 용치면 용반리 일림산 일원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 (토) ~ 5. 6. (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판소리, 고수 권연대회, 추모제

2024 한국음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 5. 4. (토) ~ 5. 5. (일) 울포출발해수목장 2개 종목 12개팀(음티미스트 10, 토라츠 2)

제2회 보성대일리콘서트 with 드론쇼 5. 4. (토) ~ 5. 6. (일) 농협마트 주차장(보성역 옆)

포항시, 2조 7,900억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1,500억 원 증액 편성

저출생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역점사업 차질 없이 추진



포항시는 2024년 본예산 2조 6,400억 원 대비 1,500억 원(5.68%)이 증가한 총 2조 7,9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2조 3,258억 원보다 1,495억 원(6.43%)

증가한 2조 4,7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42억 원보다 5억 원(0.16%)이 증가한 3,147억 원이다.

세입 재원은 보전 수입 등 985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6억 원, 세외수입 154억 원 등이다. 이번 세출예산은 저출생 극복 및 주

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175억 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사업 등에 54억 원을 투입해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양질의 성장동력을 탄탄히 마련한다.

또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00억 원, 도시 안전을 위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사업 107억 원, 동물용 의약품 그린바이오파우드리 시스템 구축 49억 원 등 역점 신사업예산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편성된 사업들을 뒷받침하는 마중물로서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역점사업들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달 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태용/기자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 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YEONGYANG-GUN

주관  YFTF 영양축제관광재단
Yeongyang Festival & Tourism Foundation